

493 행 21:37-23장,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

21장 17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나실인 결레 시행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대적에 직면하게 된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각 처에서 율법과 성전을 훼방하는 가르침을 전파하였으며, 또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 증거하여 유대인 무리를 충동질한다. 이에 흥분한 유대인 무리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을 했고,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출동하여 바울을 체포하고 군중의 소요를 진정시킨다. 아마 이때 천부장이 긴급하게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스테반처럼 집단 폭행으로 죽임당했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결박된 후에도 군중들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고, 결국 현장에서 진상 파악을 포기한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옮길 때까지 군중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처럼 사태가 험악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던 가운데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유대 군중을 향해 변론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변론이다.

21:37-22:2, 바울의 요청과 천부장의 허락에 의한 유대인 군중을 향한 바울의 변론 개시

21장37-40절: 37.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리어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놀라)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네가 어떻게 그렇게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 38. 그러면 내가 이전에(얼마 전에) 소요를(폭동을)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그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 소읍이(작은 마을이) 아닌 (로마 제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유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1-2절: 1. 부형들아(동포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해명)하는 말을 들으라(들으십시오) 2. 그들이 그가 (모국어)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 2절에서 히브리 말은 아람어화 된 히브리어를 가리킨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공용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히브리어는 사어(죽은 언어)가 되어 일부 문헌에서나 사용된다. 그리하여 B.C.2세기부터는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아람어화 된 히브리어가 유대 사회 일반인들의 구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22:3-21, 유대인 군중을 향한 바울의 변론 내용

이번 바울 변론의 핵심은, 그가 율법과 하나님께 열심이 있던 자로서 원래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 그의 증인이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핍박자에서 증거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이번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2:3-5上, 바울이 자신의 출신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신의 본래의 태도를 밝힘

22장3절上: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

→ 현재의 테르수스(Tarsus) 라는 도시이다. 거기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

22장3절上: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Tarsus)에서 났고 이 성(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구약)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

→ 강조표시하자. 바울은 어릴 적에 구약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22장3절下: ...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전가 받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율법을 통한 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부모가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조금은 엄격하게 구약성경을 통하여 교육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상의 통로인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잘 차단해주어야 한다. 기초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때 다른 사상이 아이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본문의 가말리엘은 A.D.1세기에 활동하였던 매우 유명한 율법사로서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존경을 받던 인물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5:34 이하에서 만났던 인물이다. 특히 가말리엘은 ‘우리들의 랍비’ ‘우리들의 선생님’ 이라는 뜻을 지닌 유대인들이 수여한 최고의 명칭인 ‘라반’ 으로 불리는 일곱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율법의 미(美), 율법의 아름다움’ 이라는 별도의 호칭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정도의 명성을 지닌 가말리엘 율법사에게 직접 율법을 배웠다면, 바울이 당대의 그 어떤 정통 유대인보다 뛰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2장4절: (유대교에 대한 대단한 열심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교의) 도(진리)를 박해하여 (심지어) 사람을(그리스도인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스도인) 남녀를(남자뿐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결박하여 옥에(감옥에) 넘겼노니 (넣었더니)

22장5절上: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교의) 장로들이 (이러한 일의) 내 증인이라 ...

→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자신을 가리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죄인 중의 괴수’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본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의 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5下-11,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 대해 증거함

이번 소단락은 사도행전 9:1 이하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다.

22장5절下: ...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결박(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22장6-7절: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정오12시)쯤 되어 홀연히(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 빛보다 훨씬 강력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핍박)하느냐 하시거늘

→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즉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다. 이런 사실은 이후 바울에게 깊이 각인되어 바울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리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바울의 신학이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진리의 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 그 성도의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22장8-9절: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22장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아나니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성실히 상고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절반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22장11절: 나는 그 (초자연적인 강력한)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시력을 상실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22:12-16,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받게 된 경위를 진술함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약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음을 밝힌다.

22장12절: (구약)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간과하고 있는, 구약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전통을 가슴에 새기고, 이러한 바른 전통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22장13-16절: 13. 내게 와 곁에 서서 (그가 안수하여)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상실되었던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그(아나니아)를 쳐다보았노라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선)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15. 내가 그를(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며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22:17-21,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진술함

22장17절: 후에(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간 자숙, 반성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 본서 10:10에도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다. 예전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황

홀한 중에’ 를 ‘비몽사몽간에’ 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로 ‘비몽사몽’ 은 ‘꿈이 아니라 마치 꿈처럼 어렵
뜻한 의식만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스타시스’ 는 ‘뚜렷한 의식 상태’
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전 개역한글 성경의 이런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헬
라어 ‘엑스타시스’ 에서 유래한 영어 ‘엑스터시’ 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황홀한 상태’ 를 의미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본절에서 이 단어는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영
적인 현상을 매우 잘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된 상태’ 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경
험을 본문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기술하고 있다.

(행16:9, 새번역)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
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행18:9, 새번역)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
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이처럼 바울의 주관적 체험은 실제적인 것이었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매우 분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고
린도후서 12:1 이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삼층천 즉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신비체험을 공개
한 적이 있었는데, 바울은 정작 이런 신비체험을 전혀 부각시키려 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들은 주관적
신비체험을 과장하여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득불
(不得不) 자신의 주관적 신비체험을 피력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2:1
이다.

(고후12: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러한 신비체험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오늘날 미신과 신비주의에 미혹되지 않
는다.

사도행전 22:17을 다시 보자.

22장17下-18절: 17下. ...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그 유대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너의 전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2장19-20절: 19. 내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그 유
대인들도) (다) 아나이다

→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18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바울이 19-20절과 같이 주님
께 말씀드린 것은, 과거 그리스도교를 극심히 핍박한 특별한 전력이 있는 자신이 하는 말이라면 유대인
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도 받
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전도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
하게 말씀하신다(22:19-21). 이후 바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하였고, 바나바의 추천으로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하기까지 약 10년간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
도행전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22장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서둘러) 떠나가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 바울을 적대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화 된 히브리어 방언, 자신들의 언어로 시작된 바울의 연설을 지금까지는 잠잠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 선교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분노를 다시 터뜨린다. 이런 사실은 22절에 나오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는 표현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21절의 내용, 즉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어서 다시 소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그들의 선민의식, 왜곡된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2:22-30, 유대 군중 소요의 재발생 및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으로 인한 산헤드린 공회 소집

22:22-23,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재차 소요를 일으킴

22장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다시 흥분하여)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려야 할 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 바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범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는가?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는가?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진실과 사실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 때문에 이런 모욕과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

22장23절: **떠들며(아우성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날리며 자신들의 분노를 표시하니)**

22:24-25上,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 고문을 명함

22장24절: (그렇게 유대인들이 분노를 표시하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로마군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이번 소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대

22장25절上: (심문을 위하여)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

22:25下-28,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

바울은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로마인을 고문하는 것은 불법임을 지적한다.

22장25절下: ...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 본서 16:37에서 로마의 공화정 시대인 B.C.509년경에 제정된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에 대해 이미 설명했었다. 바울이 현재 이러한 로마법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22장26-27절: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나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2장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로마) 시민권을 (겨우)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사회 혹은 정부
의 고위층사람들, 로마를 위해 특별히 공헌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또한 편법
으로 로마제국이나 지방의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다. A.D.41-54년까지 로마의 최
고 통치자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했는데, 그의 아내였던 메살리나와 장관들까지
도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 돈을 모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절에 등장하는 천부장의 씨
족 명(family name)이 ‘글라우디오’ 이므로 그 역시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이 시민권을 산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통념상 돈으로 산 시민권은 출생 시민권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천부장
이 뇌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산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 바울의 아버
지 또는 바울의 조상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의미이다. 베냐민 지파이며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조
상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22:29,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적법한 대우를 받음

22장29절: (채찍질로)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로마 시민자인) 그(바울)에게서 (다)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로마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권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처럼 바울의 변론에 또다시 흥분한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재차 소동을 일으키자, 천부장은 일단 바
울을 성전 북쪽으로 연결된 안토니아 요새 영문 안으로 구인하여 채찍질하고 심문하려 하였다. 그러나 바
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일단 당면한 위기를 넘긴다.

22:30,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이유를 파악하고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
하게 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움

22장30절: 이튿날(바로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
라

23:1-11,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바울의 변론

23:1-5,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돌함

23장1-3절: 1.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를(공회원들을)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울

의) 입을 치라 명하니 3.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위선자, 외식자)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올
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하나님의) 올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 마태복음 23:27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외적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는 썩어 냄새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칠한 담은,
흰 회를 발라 균열된 부분을 감추어 곧 무너질 균열된 담인데 마치 견고한 것처럼 꾸며놓은 상태를 뜻
한다. 이런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에스겔 13:10 이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에스겔 13:10 이하에서는
당시 거짓교사, 거짓선지자들이 회칠한 담을 세운다는 말씀이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도,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평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속여 말하기를, '평안이 있다~ 괜찮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된 말을 했다.
어떻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위선자에 대한 질책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23장4-5절: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출22:28에)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고 바울
이 해명)하였느니라 하더라

23:6, 바울이 부활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변론에 임함

23장6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
노라**

23:7-10,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분쟁이 생김

23장7-10절: 7. (바울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모두) 다 있다 함이라 9. 크게 떠들새(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
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
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들어가라 (명령)하니라

23:11,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격려하시며 금번 사태를 계기로 바울이 로마
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심

23장11절: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심한 고초를 당했던)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새번역: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여
야 하리라** 하시니라

→ 아무리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아마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이다. 그 위급한 지경에 놓여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바
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울 곁에서 위로하시고, 로마 선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주시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이고, 그 로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

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1-11절 단락에서는, 그 이튿날 천부장이 소동의 원인을 알기 위해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움에 따라 바울이 2번째로 변론하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산헤드린의 주요 구성원들로 당시 유대교의 대표적 분파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적 견해 차이를 이용하여, **부활 신앙 곧 죽은 자의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진리의 도를 변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데리고 온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라! 라고 격려했고, 바울이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23:12-22, 바울 살해를 위한 유대인 암살단의 음모와 발각

23장12-15절: 12. 날이 새매(다음날 이른 아침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암살단을 결성하여)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맹세)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바울 살해를 결의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암살단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산헤드린)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요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바울을 산헤드린으로 재소환하라) 우리는 (매복하여 있다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 이때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며 정확한 섭리가 작동된다.

23장16절: 바울의 생질이(누나의 아들,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 바울의 가족에 관한 유일한 정보이다.

23장17-22절: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바울의 조카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바울의 조카를) (돌려)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23-35,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의 송치

23:23-24,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함

23장23절: 백부장 둘을 (은밀하게) 불러 이르되 **밤 제 삼 시에(밤 9시에) (떠날 수 있도록)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총 470명의 군사를) 준비하라** 하고

→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다.

23장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령)하며

→ 여기 등장하는 벨릭스는 성경 밖의 일반역사 문헌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다. 주후 52-60년까지 유대지역을 다스렸던, 유대 주재 제11대 로마 총독이다. 빌라도가 5대 총독이었다. 안토니우스 벨릭스는 노예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사 계급이 취임하는 로마 영지의 총독이란 영예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형제 팔라스 덕분이었다. 팔라스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황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하여 자유민이 되었고, 그의 형제 벨릭스도 팔라스 덕분에 자유인이 되었다. 벨릭스는 태생이 비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통하여 계속적인 신분 상승을 꾀한다. ‘글라우디오의 생애’를 저술한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그가 얻은 3명의 부인은 모두 다 공주였다고 한다. 벨릭스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충돌에 개입하여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로 주후 60년경 로마로 소환되었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된다. 벨릭스의 운명(죽음)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23:25-30,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공문도 발송함

23장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공문을 발송하니) 일렸으되

→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23장26-30절: 26.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안토니우스) 벨릭스 각하게 문안하나이다 27. 이 사람(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8.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이 사람(바울)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유대인 고소자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 당시 로마 총독에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로마 시민의 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재판권이 있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23:31-33,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총독 벨릭스 앞에 섬

23장31-33절: 31.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 지점인)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 이튿날 기병(만)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병사는) 영내로 돌아가니라(안토니아 요새로 복귀 시키니라) 33.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천부장의 공문을) (벨릭스)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23:34-35,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헤롯 궁에 일시 구금할 것을 명함

23장34-35절: 34. 총독이 (공문을)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 줄 알고 35.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총독 관저로 사용하던) 헤롯 궁에 (바울을 일시 구금하고)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처럼 12-35절 두 문단은 유대인들이 바울 살해를 위해 소위 40인의 암살단을 조직하자,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 470명을 동원하여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시키는 내용이다.

이제 이어지는 24-26장은 바로 이 가이사랴를 장소적 배경으로 하는 기사들이 기술되어 있다. 아마, 당시 지구라는 별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할만한 가장 가치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이다.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바치는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2-23장의 말씀을 조용한 골방에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사도행전 21:37-23장

- 진리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 기록된 말씀 성경을 성실히 상고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 구약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 ‘황홀한 중에’ 로 번역된 헬라어 ‘엑스타시스’ 는 뚜렷한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즉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현상을 매우 잘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 바울의 황홀경의 주관적 체험은 실제적인 것이었고 매우 분명한 것이었다.
- 바울은 자신의 신비체험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들은 주관적 신비체험을 과장해서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득불(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관적 신비체험을 피력한다(고후12:1).
- 겔 13:10 이하의 ‘회칠한 담’ 은 거짓선지자들이 평안이 없는 상황에서 평안이 있다고 거짓 확신을 주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 바울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용기를 내라!’ 라고 격려하시며 바울이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을 알려주시게 된다.
- 유대인들이 바울 살해를 위해 ‘40인의 암살단’을 조직하게 되자,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 470명을 동원하여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시키게 된다.
- ‘사탄의 폭력적인 역사’ 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에 관해 상고해보자.
-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할 만한 가장 가치있는 사람이었다.
-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사명을 위해 바치는 자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